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1. 23(수)	
		작 성 문 의	경제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 송태복 / 사무관 서수철 (Tel. 044-200-2232)
* 엠바고 : 11.23(수) 16:00(회의종료) 이후 사용 # 공동배포 : 농림축산식품부			

## AI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기로

- AI 대응단계 격상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 동원기로
- 철저한 식용 가금류 안전조치로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
- 현장에서의 방역조치 철저히 시행하고, 이행실태 점검기로

□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1.23(수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‘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관계차관회의’를 개최하고, 당면한 AI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.

\* 참석 :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질병관리본부, 행정자치부, 국민안전처, 국방부, 문화체육관광부

○ 이번 회의는 최근 AI 바이러스의 확산 조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천안 및 익산 철새 서식지의 야생조류와 해남, 음성 가금농가 등에서 고병원성 AI(H5N6)가 연이어 발생하고, 경기도 양주·포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들어,

○ 이번 AI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며,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\* (11.22 현재) AI 발생농장 : 음성, 해남, 무안, 청주, 양주, 김제, 야생조류 : 천안, 익산, 아산

○ 또한, 철새의 의한 가금농가와 내륙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'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'에 따른 위기경보를 「주의」 단계에서 「경계」 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선제적이고 전국적인 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.

\* 위기경보 단계 : 관심(평시) → 주의(철새이동 유입시기, 의사환축 발생, 국내 발생) → 경계(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전파시) → 심각(여러지역에서 발생, 전국 확산 우려시)

□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농식품부, 환경부, 안전처, 행자부,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확실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○ 정부는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시·도(시·군)에서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,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발령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과감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가금류 사육농가들에게 철저한 소독, 외부인·차량 출입통제, 축산농가간 모임 자제, 철새 도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현장에서의 이행실태를 관계부처에서 점검기로 하였다.

○ 이와 함께 살처분 참여 인력, 농장 종사자 등 방역요원에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생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